무소속·민주 3파전 양상

■화 순

구충곤 (민주당)

전완준 (무소속)

임호경 (무소속)

구충곤 "깨끗한 군수 선택해 달라"
전완준 보석 출소… 명품화순 만들것
임호경 조직력 바탕 민심 공략 나서

화순은 전남에서 손 꼽히는 무소속 강세 지역이다. 당초 전완준(52) 화순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 직후에는 무소속 임호경(58) 후보와의 '일 대 일'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군수의 공천권을 박탈한 뒤, 구충곤(51)전남도의원을 전략공천하고 전 군수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 '옥중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치 앞을 보기 힘든 판세가 됐다.

특히, 화순군수 선거전은 후보들 간의 독특한 앙금 관계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후보와 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족 간의 대결을 치른 바 있다. 전 후보의 형 전형준 전 군수가 임 후보의 부인인 이영남 전 군수를 접전 끝에 물리쳤으며 이후에도 양측 진영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전 후보와 구 후보도 각각 군수와 도의원 시절, 극도의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수 선거전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해묵은 감정싸움까지 겹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판세는 무소속 전완준· 임호경 후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구충곤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충곤 후보는 군민 대통합 운동과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 화순~광주 광역철도 조기 개통, 대기업 투자유치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 파문으로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며 깨끗한 군수를 선택해달라는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초선 전남도의원 출신인데다 민주당 공천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인지도가 낮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금보석으로 출소한 전완준 후보는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0대 살기 좋은 명품 행복도시 건설,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육성, 200만 관광시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 후보는 "인생의 모든 것을 화순에 바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형제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화순 군민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임호경 무소속 후보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공약으로는 2000개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한약재 생산단지 조성, 온 가족이 행복한 복지 화순, 남도 제일의 관광 화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부부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는 무소속의 전 후보와 임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판 민주당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김양수-이청 '리턴매치'

■장 성

김양수 (민주당)

이 청 (무소속)

김양수 30년 공직 경험 내세워 설욕 다짐
이 청 지지기반 탄탄… 농민·노인층 공략

장성은 민주당이 최근 4년 사이 두 차례나 무소속 '부부군수'에게 군수자리를 빼앗기면서 크게 체면을 구긴 탓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민주당 김양수(59) 후보와 무소속 이 청(53) 후보가 2년 만에 다시 군수 자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이는 형국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이 후보와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 김 후보는 지난 2008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 군수와 한바탕 접전 끝에 패배하는 아픔을 맛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민주당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경선에 앞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김 후보는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무안군 부군수와 전남도 행정국장 등의 30년 공직 경력을 내세우고 공직 경험이 없는 이 군수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장' 지원유세에 함께 나서고 있으며, 선거운동 시작일인 20일에는 김효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이낙연 의원, 조영택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후보 등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김 후보는 장성 11개 읍·면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장성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연령층으로는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현역 군수인 무소속 이 후보도 만만치 않다.

이 후보는 2년여 재임기간 동안 건설교통부 국장 출신인 남편 유두석 전 군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지원을 끌어오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성군수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과 '부부군수' 대결 구도다.

이 후보는 유 전 군수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데다 장성의 주요 연령층인 65세 이상 노인들과 농민, 농민단체 등이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점에서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펼쳐놓은 사업들의 완성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민선 4기 장성군은 정부의 지원으로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면서 "민선 5기는 그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명감이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 잡음으로 인해 지역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무소속 돌풍'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기초단체장 연대에 동참, 반 민주당 구도를 만들고 있어 민주당과 무소속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현군수 세번째 대결

■구 례

서기동 (민주당)

전경태 (무소속)

이의달 (무소속)

서기동 현직 프리미엄·민주 공천
전경태 '무능군수 심판론' 부각
이의달 독립투사 후손 집중 홍보

민주당 서기동(60), 무소속 전경태(62)·이의달(75) 등 3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서기동· 전경태 전직 군수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유권자는 2만3000명. 투표율 80%(2006년 선거 78.8%)를 가정할 때 9000~1만표 정도에서 당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서기동 현 군수와 전경태 전 군수 간의 세 번째 대결이다.

지금까지 전적은 1대 1. 첫 대결인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현직 프리미엄을 갖춘 전 후보가 1만2340표로 7257표를 얻은 서 후보를 물리쳤다. 2006년 재대결에서는 서 후보가 8970표를 얻어 전 후보에 730표 차로 설욕하며 3선을 저지했다.

전 후보 측은 '무능 군수 심판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전 후보 측은 "지난 4년 동안 온천이 문을 닫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골프장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등 지역경제가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변수 중 눈여겨 볼 대목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인환 전 전남도 의장의 향배다. 박 의장 당시에도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있었으나 8% 득표율에 그쳤으며 이번에도 이 후보가 양강구도 하의 빈틈을 비집고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지만 당선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에 당 공천까지 받은 서 후보가 전 후보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고 분석하지만 전 후보가 4년 동안 설욕을 벼르며 조직을 다져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 후보가 최근까지 민주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 지지층도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적이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 전남 동부권에 불고 있는 무소속 바람까지 합쳐지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3선 거부감. 전 후보는 구례에서 20여년 정치를 하면서 군수 2번, 군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때문에 서 후보 측은 비록 3연속은 아니지만 12년을 군수직을 갖는데 대한 군민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표밭을 누비고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지만 당선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에 당 공천까지 받은 서 후보가 전 후보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고 분석하지만 전 후보가 4년 동안 설욕을 벼르며 조직을 다져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 후보가 최근까지 민주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 지지층도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적이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 전남 동부권에 불고 있는 무소속 바람까지 합쳐지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3선 거부감. 전 후보는 구례에서 20여년 정치를 하면서 군수 2번, 군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때문에 서 후보 측은 비록 3연속은 아니지만 12년을 군수직을 갖는데 대한 군민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박 의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중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입장에서 정서적으로는 서 후보를 지원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원으로서 무소속을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관망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두 후보는 박 의장 조직을 각개격파하면서 지지층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선거운동도 과열양상이 빚어져 불법선거운동 고발·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 후보는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 건의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 후보도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독립투사 후손인 무소속 이 후보는 제11대·제15~17대 국회의원 출마했으며 한약업에 종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장애인 생활기반 마련 주력"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장애인들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행복나눔 Together Happy 장애인가족 노래자랑'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누려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 자립생활과 차별 폐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태명 남광주 시장 '민생투어'

유태명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0일 오전 10시 학동 남광주시장 광장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 당원, 시장 상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투어'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당 소속 지방의원 후보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최영호 "무소속 연대는 이율배반"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는 무소속 연대와 관련, "미래지향적 정책과 현실적 대안 대신, 지역민들의 표만 쫓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대(連帶)'는 '힘을 합해 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을 가지고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정당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무수속 출마자들이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연대'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3명 단일화 합의

전남도교육감 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다.

신태학·서기남·윤기선(왼쪽부터) 후보 등 3명은 19일 오전 광주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도민과 교직원 여론조사 결과를 각 70%와 30%씩 반영하기로 하고, 그 결과는 빠르면 20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애초 이들은 김장환 후보를 포함한 4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내부 의견조율 실패로 3명만 단일화에 합의했다.

다만 이들은 "단일화 후보 선출 이후라도 김 후보와 의견조율을 거쳐 2차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다"며 추가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난실 "민주 독점 폐해 적극 알릴 것"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광주 지역에서의 지난 20년간 이뤄진 민주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지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경선 파행으로 광주시장 후보와 민주당 독점 행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20일 열리는 방송 토론회를 통해 '20년간의 민주당의 광주 집권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광주의 '복지 혁명'을 일궈낼 적임자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철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

신중철 민주노동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첫 거리 유세에 나서는 등 민심 잡기를 본격화한다.

신 후보는 이날 금호타이어 맞은편 건물 옥상에 천막을 설치, 마련한 사무실에서 '노동자·농민·서민이 웃는 광산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임택 "단일화 여론조사 승복해야"

임택 국민참여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홍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나와 하승완·임홍채 후보 등 3명은 비민주당 후보간 단일화에 합의하고 지난 15일 여론조사를 실시, 단일화가 결정됐지만 임 후보는 여론조사의 불공정을 운운하며 합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찬용 "도시철도 2호선 대신 노면전차"

정찬용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노면전차(바이모달트램)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철도 2호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시민 편의나 도시환경,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건설비용이 (도시철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1~2년으로 짧고 주변 자연환경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노면전차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수 무소속 단일 후보 양승일

서삼석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에 맞서기 위한 무소속 단일화 후보가 양승일(사진) 후보로 결정됐다. 19일 무안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양 후보와 임재택, 정해균 후보 등에 따르면 후보단일화를 위해 전날 실시된 지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가 최다지지율을 획득했다. 무안군수 선거는 이로써 민주당 후보인 서 후보와 무소속 양 후보간으로 치러진다.

김보현 치평동에 선거사무소

김보현 민주당 광주시의원(서구 제2선거구)후보는 20일 오후 5시 서구 치평동 구영오피스텔에서 조영택·김영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 당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정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이정재 광주시교육감후보가 20일 오전 10시 광주시 금남로 무등빌딩 15층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다. 이 후보는 발대식에서 초등학교 교장에서 교육대 총장까지 일선 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한 강점을 알리고,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중 최초로 공약한 유·초·중·고 무상급식 등의 공약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후보는 "새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막아내고 비리와 무사안일에 헤매는 광주교육을 개혁해야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라면서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김지을·박진표·남철희기자 cki@